

大學과 教師教育

愼 克 範
(漢陽大 師範大學長)

우리나라의 教師教育은 다른 專門職 教育에 비하여 그렇게 만족스러운 발전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근래에는 高等教育人口의 팽창으로 敎員의 과잉 공급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 師範大學生의 士氣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教師養成教育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몇 가지 改善 方案을 기술하고자 한다.

I. 序

敎師는 敎育의 成敗를 좌우하고 敎育이 國家 社會의 將來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二世國民의 敎育을 담당하는 敎師를 훌륭하게 기르는 일은 곧 그 나라의 敎育의 基礎를 단단히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敎育活動 중 敎師敎育은 發展을 추구하는 나라들의 중요한 敎育的 課題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敎師敎育을 위한 많은 研究와 이의 발전을 위한 制度的 改善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많은 敎育전문지에도 敎師敎育에 대한 주제가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음을 본다. 그러나 敎育人口의 팽창과 知識의 폭발, 과학기술의 활용에 따른 人間社會의 變化는 敎育을 主導하여야 할 敎師의 役割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그 專門性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社會的 要求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敎師敎育制度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더우기 初等敎師養成課程도 최근에 4

년제 大學으로 승격됨으로써 모든 敎師敎育은 大學敎育의 重要的 一部分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 敎育法 제 3조에 보면 “敎育의 目的은 學校 其他敎育을 爲한 施設에서만 아니라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서도 恒常 強力히 實現되어야 하며 公民·科學·實業과 師範의 敎育은 特別히 重視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범敎育이 크게 強調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敎師敎育은 다른 專門職의 敎育에 비하여 그렇게 만족스러운 진전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 證據는 敎職에 대한 社會的 地位가 다른 분야보다 落後되어 있고 대학에서의 사범敎育의 위치도 자주 挑戰을 받고 있다. 근래에는 高等教育人口의 팽창으로 敎員의 과잉공급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 師範大學生의 士氣低下가 우려된다. 그러나 敎師敎育의 重要性은 그 어느 때 보다는도 강조되어야 할 時點에 있다. 본고에서는 敎師養成 敎育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고 몇 가지 발전을 위한 과제를 기술하고자 한다.

II. 教師教育 發展의 沿革과 現況

初等敎員의 양성과 中等敎員의 養成制度는 본래부터 그 발전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해방 당시 南韓에는 初等敎師 양성기관으로 10개의 師範學校가 있었는데, 이 중 서울의 京城師範學校와 京城女子師範學校가 1946년 통합되어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으로 승격·개편되어 中等敎員 양성기관이 되었고, 大邱師範學校도 중등교원 양성기관으로 개편되었다. 1946년에 서울과 開城에 師範學校를 신설하였고, 1947년에는 忠州, 群山, 木浦, 順天, 釜山, 江陵, 安東 등지에 각각 사범학교를 신설하였다. 濟州道에는 初等敎員養成所를 설치하였고 慶北의 몇 개 中學校에 師範科를 설치하여 초등교원 양성을 代行케 한 것이다. 이들 양성소와 中學校부설 사범과는 후에 濟州師範學校와 大邱師範學校로 개편되었다.

1950년부터 1956년까지 당초에 道立(公立)이던 모든 사범학교는 國立으로 移管되었다. 6·25 動亂 후 開城師範을 仁川으로 옮겨 仁川師範學校를 再發足하여 총 18개의 사범학교가 1961년 5·16 軍事革命政府에 의하여 公布된 '敎育에 관한 臨時特例法'에 의해 2년제 敎育大學으로 개편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62년 전국 18개 師範學校 중 10개교가 敎育大學으로 승격되었고, 그 후 5개의 사범학교가 敎育대학으로 추가 승격되었다가 초등교원의 과잉공급으로 1980년에 4개 미학(강릉, 안동, 군산, 목포)이 4년제 一般大學으로 개편되고, 현재 11개의 敎育大學이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단계적으로 4년제 大學으로 修業年限을 연장 改編되어 운영되고 있다.

敎育대학 외에 梨花女子大學校의 初等敎育專攻과 한국방송통신대학의 初等敎育科가 국민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送放通信大學은 新規敎師의 양성보다 現職敎師의 學力伸長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中等敎師의 양성은 初等的인 경우보다는 多元化되어 있어 정규 사범대학이 있고 일반대학에 師範系學科가 있는가 하면 敎職科가 설치되어 있다. 師範大學도 獨立的인 사범대학이 있는가 하면 綜合大學內의 사범대학이 있는데 이 모두 각기

다른 特色을 가지고 있다.

中等敎師養成制度의 發展沿革을 日政時로 거슬러 올라가 그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많은 시사점을 준다. 日政時에는 모든 中等敎員의 養成은 日本에서 양성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일본의 高等師範學校와 기타 학교에 한국내의 중등학교에 근무할 조건으로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급, 위탁생으로 양성토록 하였고 일부 農業敎師를 水原農林學校(現 서울대 農大)에 농업교원양성소를 부설하여 양성하였다. 한편 私立中等敎員을 위한 자격제도를 1922년에 도입하여 延禧專門과 梨花專門 등 몇 개 학과 졸업생에게 私立中等敎員資格證을 취득케 하여 사립 중등학교에 근무케 하였다. 1940년대초에는 第2次大戰의 발발로 中等敎員의 不足이 심해지자 이를 양성키 위하여 1942년에 수원고등농림에 物理와 博物科目敎員養成所를 설립하였고, 1943년에는 京城高等工業學校(現 서울대 工大)에 數學, 物理, 化學의 敎員養成科를 附設하였다. 아울러 각 專門學校에 中等學校敎員養成課程이 설치·운영되었고 1944년에는 京城帝國大學(現 서울대)에 理科·博物의 中等敎員養成所가 부설되어 理科系 中等敎員을 양성하였던 것이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敎育인구의 팽창과 日本人 敎員의 귀국으로 말미암아 중등敎育은 심각한 敎員 부족에 직면하여 일부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학교를 중등교원 양성기관으로 개편하였고 1946년에 정식으로 師範大學制度가 도입되었다. 1946년 8월 22일 국립 서울大學校 設立會에 의하여 기존의 京城師範學校와 京城女子師範學校를 併合하여 서울大 師範大學으로 승격, 중등교원 양성기관으로 그 첫 출발을 하게 하였다.

그 후 1951년에 慶北大學校 사범대학이, 1954년에 公州師範大學이 4년제 중등교원 양성대학으로 설립되었고, 1956년에는 부산과 광주에 각각 초급대학 수준의 중등교사 양성기관으로 師範大學이 설립되었다가 1962년에 敎育大學으로 改編되었다. 한편 私立師範大學도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1951년 9월 梨花女子大學校 師範大學이 처음으로 新設되었고 2년제 中等敎員養成大學으로 首都女子師範大學과 서울 文理師範大學이 1954년과 1956년도에 각각 신설되었다. 수

도여자사범대학은 1961년에 4년제로 승격되었다가 1978년도에 世宗大學으로 개편, 男女共學의 一般大學으로 되었다. 서울 文理師範大學은 1962년에 明知大學으로 명칭을 바꾸고 일반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84년에 綜合大學으로 개편되었다.

1953년 4월 18일 法律 第258號로 教育公務員法이 제정·공포되어 敎員의 資格基準이 明示됨에 따라 당시 2년제 師範大學은 中學校敎師를, 4년제에서는 高等學校 敎사를 양성토록 했었는데 1962년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師範學校가 2년제 大學課程의 教育大學으로 改編됨에 따라 모든 중등교원 양성대학은 4년제로 一元化하게 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 正規中等敎員 양성기관인 師範大學은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크게 增設되었다. 이는 중등교육 인구의 급격한 팽창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1964년까지만 해도 사범대학으로는 서울大 師大, 慶北大 師大 및 公州師大 등 3개의 국립 사대와 私立으로 梨花女大 師大 하나가 있을 뿐이었으나 1961년과 '70년 사이에 8개의 大學이 增設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도여자사범대학이 61년에 4년제로 승격되었고, 1965년에는 경희대, 중앙대, 조선대 師大가 인가되었고 동년 祥明女子師範大學이 설립되었다. 1966년도에는 한양大 師大, 1968년에는 東國大 師大가, 1969년도에는 釜山大 師大가, 그리고 1970년도에는 淸州大 師大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師大의 增設 추세는 1970년대에 들어 더욱 높아졌는데 1971년부터 '80년까지의 10년 동안에 무려 국립 5개와 사립 9개 총 14개의 師範大學이 설립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1971년도에 檀國大 師大, 全北大 師大, 全南大 師大, 山光大 師大가 설치되었고, 1972년에는 高麗大 師大, 成均館大 師大, 嶺南大 師大, 仁荷大 師大 및 獨立師大로서 淸州師範大學이 증설되어 한 해 동안에 5개 대학이 신설된 셈이다. 그 후 1973년도에 建國大 師大와 弘益大 師大가 발족되었고, 1977년에는 忠北大 師大, 1978년에는 江原大 師大, 그리고 1979년에는 慶尙大 師大가 각각 신설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師範大學의 增設은 계속되었다. 1981년도에 延世大 師大, 啓明大 師大,

韓國外國語大 師大, 曉星大 師大 및 國民大 師大가 설치되었고, 1982년도에 濟州大 師大, 大邱大 師大, 誠信女子大 師大 및 慶南大 師大가 새로 설치되었으며, 1983년에는 全州大 師大가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범대학이 新設된 것은 中等教育人口의 팽창에 따른 敎員의 需要增大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들어 많은 單科大學들이 綜合大學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敎사 양성학과들을 확대하여 사범대학으로 개편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83년도에 또 하나의 새로운 師範教育機關의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1985년부터 開校하게 된 韓國敎員大學學校가 바로 그것이다. 이 대학은 敎員教育만을 위한 綜合大學으로서 유치원부터 초·중등의 교원을 한 캠퍼스에서 양성하게 되는 대학원과 연수기관까지를 포함하는 特殊師範大學이라고 볼 수 있다.

中等敎員養成制度로서 사범대학이 확대되기 이전에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도 中等敎師資格 취득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一般大學에 설치되어 있는 敎職課程이 있다. 이 과정은 1955년 문교부령 제29호에 의거하여 一般大學 出身者에게 敎職에 진출할 기회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본래 敎職課程의 設置는 사범대학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敎科目과 敎員의 需給上 필요한 경우에 문교부장관이 承認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1962년 軍政下에서 일시 廢止되었다가 1963년 12월 教育公務員法의 改正에 의거 1964년부터 復活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4년 4월 현재 中等敎員養成大學의 統計를 보면 사범대학이 국립 10개 대학에 사립이 24개 대학으로 총 34개 대학이 있다.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으로는 국립에 19개 대학 404개 학과가 있고 사립에 65개 대학 1,293개 학과로서 총 84개 대학 1,697개 학과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中等敎員養成의 또 다른 형태는 사범대학과 똑같은 資格이 부여되는 一般大學의 教育學科가 있다. 1984년 현재의 教育學科의 설치현황을 보면 국립에 6개 대학 25개 학과와 사립에 26개 대학 72개 학과가 있다.

중등교원양성제도의 영역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中等敎員養成所의 설치와 敎員研修院

制度이다. 中等敎員養成所는 中等敎師의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47년부터 1958년까지 전국의 각 대학에 12개소가 설치·운영되었다. 당시 우리의 正規敎員養成機關인 師範大學이 발전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대책으로 부족한 中等敎師의 양성에 크게 공헌하였다. 현재도 敎育법 시행령상으로도 필요시에는 임시 敎員양성소를 設置·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규 師大와 敎직 과정 졸업자의 과잉으로 그 설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다.

敎育研修院制度는 1962년 軍政下에 中等敎員養成制度의 改編에 따라 一般大學을 졸업한 학생을 입학시켜 1년간의 敎職課程 위주의 敎育을 마친 후 中等敎師 敎師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년간 지속되었으나 당시 敎員充員의 차질을 가져오는 등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1964년도에 폐지하고 一般大學의 敎職課程을 부활하여 통합 운영케 하였던 것이다.

그 외 中等敎師 중 實業系敎師의 양성을 위하여 1963년에 敎育法을 개정, 대학이 實業敎育科(農·工 등)를 설치케 하였다. 그리하여 서울大學校 工科大學에 工業敎育學科를, 또 農科大學에 農業敎育學科를 신설하였고, 그 후 일부 공과대학과 농과대학에 같은 實科系敎育學科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産業의 發展에 따라 實科敎師의 離職率이 높아지고 그 需要가 증대됨에 따라 1968년에 敎育公務員法을 개정하여 대학의 工業, 水産, 海洋 및 農業系學科 중 文敎部長官이 지정하는 대학의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敎職課程의 履修 없이 中等準敎師 자격증을 수여하였으나 1982년도에 實科敎員 과잉 공급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1977년에는 서울大學校 工科大學의 工業敎育學科를 없애고 忠南大學校 工科大學을 工業敎育大學으로 特性化하여 工業敎師를 집중 양성케 하였으나 1983년에 그 정원을 축소하여 일반공학부를 다시 설치하였다. 서울大 農科大學의 農業敎育學科는 1963년 설치 이래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으나 다른 大學에 설치되었던 實科系 敎育학과들은 모두 폐지되어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았다.

이상의 여러 형태의 敎員양성과정별로 양성된

현재의 中等敎員의 분포를 살펴보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가 총 31,686명으로 전체 敎員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私立 師大 졸업자는 총 17,441명으로 13.1%, 敎직과정 이수자는 총 69,635명으로 전체 中等敎員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양성소 수료자는 3,958명에 불과하고, 자격검정고시 합격자가 6,724명 그리고 기타가 3,206명이다.

양성소나 자격검정 등은 정규과정 이수자가 부족한 때 실시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敎員양성은 國立과 私立의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敎직과정 설치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Ⅲ. 몇 가지 課題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初·中等敎員養成制度의 發展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1984년 현재 전국의 99개 대학 중 86개 대학에서 中等敎師가 양성되고 있다. 문교부의 1984년 4월 1일 현재의 집계에 의하면 20개 국립대학의 총 583개 학과에 56,500여 명의 학생이, 그리고 66개 私立大學의 1,525개 학과에 총 125,900명이 재학하고 있어 大學敎育을 받은 전체 學生數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高等教育에서 敎員敎育이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敎員養成制度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初等敎員養成은 전적으로 國立敎育大學에 의존하고 있고 이들 대학들은 舊師範學校를 改編하여 비교적 안정된 成長을 하여 왔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한때 需給계획의 차질로 졸업생들이 크게 부족하여 臨時敎員양성소에 의존할 때가 있었는데 하면 졸업생의 과잉 배출로 敎育大學의 人氣가 아주 下落하여 入學定員이 미달하던 시기도 '60년대 초반에 있었다. 그러나 1963년 2년제로 승격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1981년에 서울敎育大와 부산敎育大를 4년제로 승격·개편하고 나머지 9개 대학을 198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4년제 學位과정대학으로 改編을 完了함으로써 그동안 敎育大學들이 初級大學이라는 데서 연유한 일반의 높이 못하였던 인식에서 당당한 大學의 隊列에 끼게 되어 初等敎員의 資質向上과

社會的 地位向上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년제로 승격된 후 志願學生들의 學力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國民基礎教育의 重要性에 비추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修業年限의 연장만으로 教育의 質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學士學位課程에 알맞는 높은 수준의 教育을 시킬 수 있도록 教授人力의 水準을 높여야 하고, 필요한 研究와 學習施設을 구비케 하며 또 財政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1963년 師範學校가 教育大學으로 改編될 때 教授人力에 대한 별다른 努力 없이 단순히 수업년한을 연장한 데서 教育대학이 大學의 隊列에 몇몇한 存在로서의 인식을 못 받고 최근까지 있어 왔던 것을 생각하면 4년제 미학으로서의 教育大學은 어느 一般大學보다도 높은 水準의 教育 여건을 갖추도록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文敎當局은 教育大學이 모두 國立이고, 또 많은 재정투자를 하느니만큼 長期的 수급계획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졸업생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거와 같이 과잉이나 부족 현상으로 초등학교원의 사기 저하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로 中等敎師養成制度의 特徵은 그 養成課程이 多元化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시책이 보다 合理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敎師教育專門機關인 師範大學이 있고 一般大學에 敎職科가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또 敎科別 教育學科가 數는 많지 않으나 운영되고 있어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細部運營 現황을 보면 더욱 복잡하다.

初等敎員養成大學과는 달리 中等敎員養成課程은 國立과 私立으로 나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中等敎育機關의 반 이상이 私立學校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1984년 현재 師範大學의 總數는 34개 大學으로서 이 중 國立師大가 10개 대학, 私立師大가 24개 대학이 있다. 비록 사립 사대의 數는 국립의 배가 넘으나 學科의 數는 국립이 154개 학과이고 사립이 160개 학과로서 국립 사대가 사립 사대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재학생의 수에 있어서는 최근 國

立師大 卒業者의 수요 감소로 定員을 감축하여 私立師大가 약간 많은 편이다.

國立師大와 私立師大의 差異는 任用制度에서 볼 수 있다. 教育법 시행령상 국립 사대 졸업자는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을 교직에 복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資格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다. 또 教育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보면 국립 사대의 졸업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國立師大 학생에 대한 國家로부터의 수업료 면제 혜택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私立師大 졸업자의 公立學校 임용은 공립학교에 국립 사대 졸업자를 모두 배치하고 부족할 때 그 인원을 각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임용순위고사를 실시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教育공무원법 시행상의 국립과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차등은 國立과 私立에 同等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教育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私立師範大學 관계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즉 教育法 第9條에 보면 “모든 學校는 國家의 公器로서 法令의 定하는 基準에 依하여 設立되어야 하며 同等한 學校의 修了者 또는 卒業者는 國立 또는 私立의 區別 없이 同等한 資格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教育公務員法 第9條의 국립 사대 졸업생에 대한 우선 임용조항은 모든 학교의 졸업자에 동등 자격을 준다는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國立師大 졸업생의 복무의무규정은 오히려 복무가 혜택으로 간주되는 오늘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규정으로서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師大 卒業生들의 敎職 기피 현상이 심하던 1960년대 후반이었음을 고려하여 볼 때 현재와 같이 사대 卒業者의 數가 需要를 능가하고 있는 時點에서는 不合理하다는 것이 私立師大側의 입장인 것이다. 한편 資質 높은 敎師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모든 國立大 졸업자는 우선 임용하고 아무리 우수하여도 私立師大 졸업자는 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再考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 敎員의 離職率이 分化되고 新規 임용자의 수가 사대 卒業者의 수에 비하여 크게 적어 점점 교직 취업에의 문이 좁아져 私立師大에 대한 이와 같은 임용에 있어서의 差等制度는 사립 사대 卒業者의 士

氣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강력한 抗議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對策의 검토가 시급한 과제이다. 日帝時의 교원양성에서와 같이 私立中等敎員은 私立大에서 양성케 하여 그 자격이 다른 때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中等敎師養成에서 또 하나의 과제는 敎職科의 운영이 너무나 형식적이어서 오히려 一般大學에서 專攻敎育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과정상 부전공까지 있으므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공과목 이수시간이 너무 적어 학문의 수준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敎職課程은 84개 대학의 1,697개 학과에 설치되어 있어 師範系大學 재학생보다도 그 수가 2배나 된다. 이것은 1982년에 교직과정 이수자의 수를 설치 학과 정원의 30%까지 축소하였기 때문이지 만약 그대로 두었으면 그 수가 배로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학생의 규모가 늘어난 것은 최근 大學定員의 대폭적 增員과 졸업정원제 실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師大와 敎職課程 이수자들에 대한 敎育課程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 중 敎育實習의 문제가 가장 難題로 지적되고 있다. 1984년도 서울 시내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한 학생의 수가 2만명이 넘어 시내에 있는 모든 中學校가 교생실습지도 부담으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敎育實習에서 또 문제되는 것은 師大의 경우는 全學生이 참여하게 되나 敎職課程學生의 경우 한 學科 인원의 30% 이내의 학생만이 참여하게 되므로 이들은 4주일간의 실습기간 동안 다른 학생보다 자기 전공의 수업을 못 받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이 敎職課程設置大學이 많아짐에 따른 문제를 감안할 때 敎育實習에 대한 새로운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 교직과정 설치의 취지가 師範大學에서 양성이 안 되는 분야나 수급에 차질이 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었으나 대학의 敎員養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너무 많이 擴大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多多益善으로 훌륭한 敎師로서의 자질을 대학에서 길러 준다면 당장에 교직에 취업이 안 된다 하여도 자기 전공분야에서 얼마든지 일반 학생보다도 우수한 일꾼이 될 수 있다.

끝으로 敎師養成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師

範大學이 학문적으로 일반대학의 專攻學生과 결코 뒤지지 않도록 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범대학이 綜合大學에서 운영되는 것은 그 대학내의 모든 敎育資源을 폭 넓게 활용하여 사범대학생으로 하여금 보다 심오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다는 데 利點이 있고, 또 師範大學은 대학에서의 여러 전공영역에 걸친 교수법의 개선 등 敎育學的 支援을 전체 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오늘과 같이 비대한 大學敎育에 있어서 敎育學的 問題들은 과거 초·중등교육 이상으로 많은 研究課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高等敎育에 있어서의 師大의 位置는 더욱 強化되어야 하고 또 그 기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敎育學 이외의 專攻敎科 분야에서는 師大와 一般大學과의 차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아 일부에서는 師大無用論도 한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뒤진 것은 각 敎科敎育에 대한 研究이다. 각 전공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느냐의 敎育의 原理연구는 師大의 여러 학과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敎師養成制度는 항상 교사의 수급문제와 관련된 것이었고 오늘날에는 과잉양성으로 어려움도 있으나 그것은 우리나라 高等敎育의 전반적 추세이므로 量的인 肥大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알찬 師範敎育이 이루어지도록 政策的인 配慮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專攻敎育의 水準을 일반학과 학생에 못지 않게 높혀 주는 동시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각 교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수준의 敎養이나 敎職者로서의 倫理意識도 전공에 대한 實力이 수반될 때 敎育的 效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우리나라 大學의 9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敎員養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재학하는 학생만도 전체 학생의 1/4에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면 敎師敎育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모든 大學 관계자들이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敎育의 成敗가 敎師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質 높고 올바른 敎師敎育이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